



## 미 증시,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로 급락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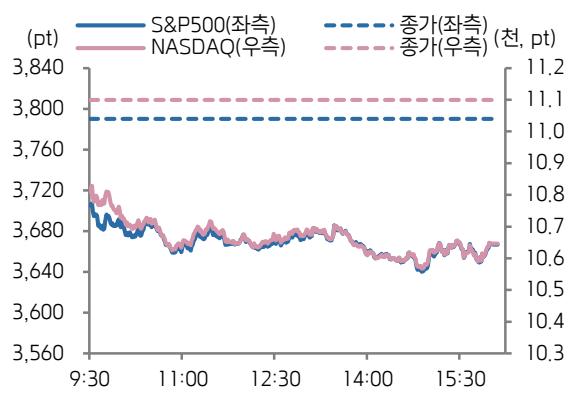
16 일(목) 미국 증시는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 단행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확산되자 하루 만에 급락. (다우 -2.42%, S&P500 -3.25%, 나스닥 -4.08%, 러셀 2000 -4.7%)

스위스 중앙은행(SNB)는 50bp 금리 인상, 영란은행(BOE) 역시 기준금리 기준 1.00%에서 1.25%로 25bp 인상하며 작년 12 월 이후로 5 회 연속 금리 인상 단행. 영국 4 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9%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향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한편 신흥국 아르헨티나는 5 월 기준 전년대비 50% 상승에 달하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49%에서 52%로 인상하며 6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 이처럼 미국과의 금리차를 축소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돌입하자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가 부각되며 증시는 급락세를 보임.

미국 재무부에서 이란의 석유제품 수출에 관여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는 소식에 유가가 1.5% 이상 상승 마감한 점 역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소비재(-0.7%), 헬스케어(-1.5%), 유트리티(-2%)의 낙폭이 가장 적었고, 에너지(-5.6%), 경기소비재(-4.8%), IT(-4.1%) 업종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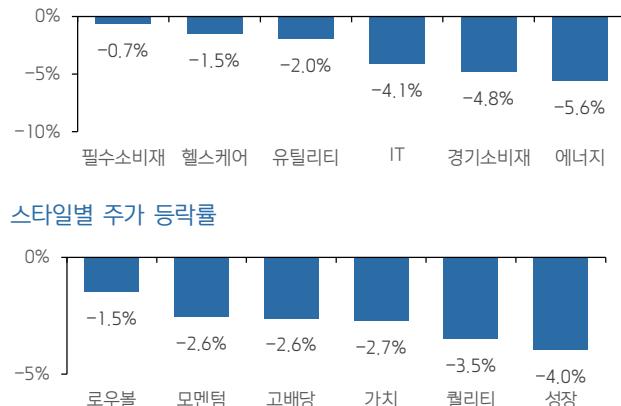
미국 주요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하게 발표되며 주택시장 둔화, 제조업 경기 악화 우려를 반영. 미국 5 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14.4%(예상치 -1.8%, 전월치 5.5%), 5 월 건축허가건수는 전월 대비 -7.0%(예상치 -2.5%, 전월치 -3.0%)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 6 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전망은 -3.3(예상치 5.0, 전월치 2.6)을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에 진입.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666.77  | -3.25%  | USD/KRW   | 1,286.90 | -0.27% |
| NASDAQ      | 10,646.10 | -4.08%  | 달러 지수     | 103.82   | -1.27% |
| 다우          | 29,927.07 | -2.42%  | EUR/USD   | 1.06     | +0.03% |
| VIX         | 32.95     | +11.24% | USD/CNH   | 6.69     | +0.05% |
| 러셀 2000     | 1,649.84  | -4.7%   | USD/JPY   | 132.22   | +0.01% |
| 필라. 반도체     | 2,566.86  | -6.24%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2,924.52 | -3.4%   | 국고채 3년    | 3.725    | +7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772    | +0.3bp |
| Eurostoxx50 | 3,427.91  | -2.96%  | 미국 국채 2년  | 3.093    | -9.7bp |
| MSCI 전세계 지수 | 585.78    | -2.42%  | 미국 국채 10년 | 3.195    | -8.9bp |
| MSCI DM 지수  | 2,556.67  | +1.22%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1,020.10  | +0.22%  | WTI       | 117.59   | +1.98% |
| MSCI 한국 ETF | 59.24     | -2.89%  | 금         | 1849.9   | +1.67%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8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3.0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9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7.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2. 원/달러 환율 변동
3.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경계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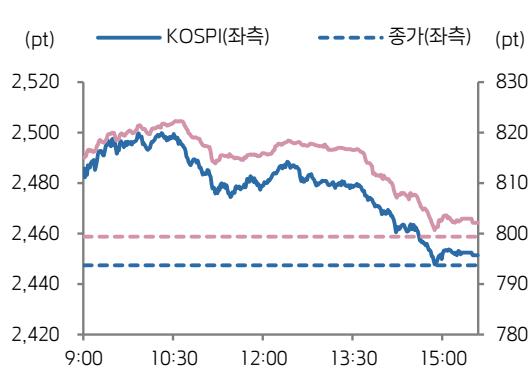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6 월 FOMC 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ECB 긴급회의를 통한 신규 채권 매입을 예고 등으로 증시가 안도감을 가졌던 측면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스위스, 영국 등 주요국들의 긴축 행보가 이어지며 유동성 축소 및 경기 침체 우려는 재차 확산되며 증시는 급락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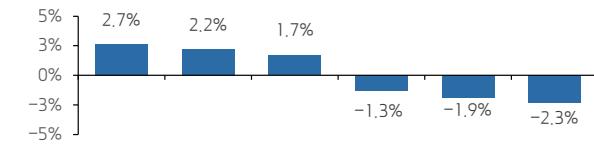
지난 해 하반기부터 FOMC 당일과 다음날의 주가가 상이한 흐름을 보인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과 해석을 두고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높은 물가 수준과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지표 및 제조업 지표들이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금일 한국 증시 역시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전일 장 후반 상승폭을 상당 부분 되돌리며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수의 하단은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오늘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거나,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높아질 경우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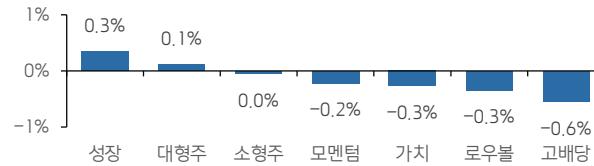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목,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